주체적 삶 지향하는 민중의 몸짓

——전남지역 민중들의 혁명적 전통

우리의 역사속에서 삼남지방은 곡창지대이면서 예로부터 봉건적 수취가 심한 곳으로 자리해왔다. 광주민중항쟁 10주기를 맞이하여 본고에서는 삼남가운데 전남지방의 민중들의 저항과 혁명적 전통을 연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이 동 선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

1.머리말

한 민족의 생존과정은 그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삶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민중들은 역사적 자기 위상을 확보하고 확대해 가기 위한 끊임없는 저항을 계속해 왔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저항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님은 자명하다. 즉 민중적 저항은 자신의 삶을 에워싸고 조여오는 역사적 질곡과 사회적 모순에 의연히 대항하여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 가는 혁명의 단초가 된다.

우리 역사에서 삼남지방은 곡창지대이면서도 위로 부터의 봉건적 수취가 집중된 곳이다. 이에 삼남지방의 민중들의 삶을 위한 노력은 역사적인 모든 계기와 결합하여 광범위한 민중적 저항을 낳았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민중들의 저항의 저력이 되어 분출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삼남가운데 전남지방 민중들의 저항과 혁명적 전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필자는 하나의 문제를 재고하고자 한다. 흔히 전남지방의 특수성을 언급할 때 우려되는 지방색에 대한 경계이다. 즉 '수난의 고장'이요 '늘 푸대접만을 받아온 지역'이어서 '항쟁의 지방'이요 '반골의 땅'이라는 수식어들과 논리들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방해하는 비합리적인 감정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지방의 특수성을 사상하고 민족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 모순과 전반적인 저항만을 고찰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전남지방은 타 지방과 비교해서 극심한 수난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항도 더욱 거세었다. 그러나 한 지방을 억누르는 모순들이 전체 사회와의 인과적 관계의 결과이듯이 그에 대한 저항의 몸짓도 전체 사회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즉 특수성과 보편성의 통일에 의한 분석만이 올바른 역사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글에서는 먼저 전남지방의 소외와 수난의 역사와 함께 저항의 역사를 전근대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후, 이같은 혁명적 전통이 오늘에 처한 위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전근대사회에서의 소외와 저항

전근대사회에서의 전라도 지방의 민중들은 전통사회의 신분적 차별과 지역적인 정치적, 경제적 소외의 이중고에 시달렸다. 역사적으로 이 지방이 소외지대화한 것은 백제의 멸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어느 외신에서도 이 지방이 백제의 멸망 이후 정치의 핵심부에 단 한번도 인연이 닿지 못한 곳이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신라 말기의 견훤이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면서 옛 백제를 부활시킨다 한 것은 백제가 망한지 2백년이 지난 후에도 이 지방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소망이 어느 정도 간절했던가를 왕건과의 20여년의 피비린내나는 싸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후백제의 고려에 의한 패퇴는 이 지역을 또 한번 정치적 소외지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차령이남 금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배역했고 인신 또한 그러하므로 이 지방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는 왕건의 이른바 '훈요십조'의 여덟번째 조목은 그가 통일왕국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제어하기 어려웠던 가장 강한 세력이 곧 후백제 세력이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부패한 탐관오리의 민중에 대한 수탈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같은 소외와 수탈이 쌓여오는 동안에 민중들은 저항의 감정을 되삭일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극대화하면 거대한 항쟁의 물결을 형성하여 민란이나 민중봉기의 형태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저항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지방의 중심 지역인 광주의 옛 행정단위의 변천을 들 수 있다. 주, 부, 현의 차례로 정해졌던 고려왕조 초기의 지방관서 제도에서 광주는 주에서 현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주가 되고, 또 다시 부가 되기도 했다. (한편 조선왕조에 들어서는 광주목에서 무진군으로 강등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이는 당시 위정자들이 땅을 사람같이 여겨 사람의 벼슬을 올리거나 내리듯이 땅의 지위를 다스린데서 비롯되었다.

조선왕조 시대를 통해서 중앙의 정치권력은 대체로 경기도, 충청도 이른바 기호지방 출신들에게 집중되었고 경상도 출신의 경우도 드물게나마 권력의 핵 속에 들어가는 예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의 중요 지방인 삼남에서 전라도가 여전히 정치적 소외지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조선조 중기에 '정여립 모반사건'이 터졌다. 당시 정여립이 동인에 속해 있던 연으로 서인들의 동인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 전라도 일대에는 지식인 탄압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이로인해 구속된 자가 50여인, 귀양간 이들이 20여인, 출세길이 막힌 금고자들이 400여명이나 되었다. 이 탄압은 당대에만 그치지 않고 후손이나 문인들의 후손에 까지 이어졌다. 이후 이 지방은 역향이라는 굴레를 쓰고 정치적으로는 거의 소외되게 되었다.

근대 이전의 농업경제 시대에 있어서 전라도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장 생산이 높은 곳이었으며, 따라서 중앙정부의 수탈도 가장 심한 지역이었다. 그 한 예가 19C초의 세수의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세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미와 삼수미의 1년 총 수취량은 15만 3천석쯤 되었는데 전라도에서 그 약 40%나 되는 6만 1천석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정치적 소외속에서의 무거운 조세부담은 그 무게가 더하게 마련이며 그것은 바로 수탈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전라도의 수령들 조차 이 지방 출신들이 기용되질 않았었다. 따라서 타지방 출신의 수령들의 이 지방 민중들에 대한 수탈은 가히 상상해볼 수 있다. 심지어 황현의 '오하기문'에 의하면 "서울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 호남의 고을 원으로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는 노래가 서울에 퍼져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19C말, 전라도 수령들의 대부분 출신지가 서울과 충청도였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당시 착취의 예는 전라감사 김문현, 장흥부사 어용태, 고부군수 조병갑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하여 전라도 지방이 우리나라 전근대사회의 모순성을 집중적으로 안고 있었고 또 그것이 첨예하게 드러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라도 지방의 저항의 역사가 바로 이같은 점들에서 나왔으며 그뒤의 소외 역시 이런 맥락과 충분히 연관되어 있다. 저항은 개혁으로 가는 길이요, 개혁은 다시 혁명을 이룩하는 동력이 된다하겠다. 그 때문에 이 지방이 갑오농민전쟁의 진원지가 되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근대사회에서의 혁명적 저항

이조 말기의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했던 원인은 주로 외래 자본주의 침입이었지만, 동시에 국내 봉건적 관료, 즉 지주계층의 무법적 민중수탈에도 있었다. 따라서 반침략, 반봉건을 결합시킨 갑오농민전쟁은 이조 사회의 구각을 타파하고 새로운 지보와 출신을 목표로 한 투쟁이었다.

갑오농민전쟁은 19C의 한국민족운동의 최고봉이며, 위로는 갑오개혁의 추진력으로서, 아래로는 반일 의병투쟁으로의 연속의 기점으로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그것은 아시아적 시야에서 보아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에 대항하여 일어난 19C 아시아 민족독립투쟁사의 하나로, 나아가 세계사적 시야에서 보아도 아시아에서 반제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대중적 농민운동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아직도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규정에 있어 동학사상 및 그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자들이 많이 있지만, 초기 전봉준이 내보인 강령에서도 보이듯이 그것이 갖는 반침략적, 반봉건적 성격, 그리고 근대적 변혁을 향한 추진력으로서의 역할을 반감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데 갑오농민전쟁은 전라도 사람들이 주도한 전쟁이고 그래서 그 전라도 사람들이 당한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갑오농민전쟁은 처음에는 교조신원과 금폭의 상소에서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상소만으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라도 사람들은 봉기를 주장했고, 총본부인 법소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말렸다.

이것이 남북접이 갈라서게되는 원인이다.

이차봉기때에는 호남 단독으로 봉기를 하고 이후 북접도 제휴하게 되나 훗날 이것이 전쟁의 패인과도 연결된다.

전봉준은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그가 요구한 폐정개혁 12조 가운데에 "관리등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바른 인재를 등용할 것"이라는 조항으로 전라도 지방의 정치적 소외의 타파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폐정개혁을 위해 전라도의 53개 고을에 집강소를 두고 농민자치행정을 단행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농민자치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계기는 바로 전라도 역사에서 저항의 결정으로 이룩된 것이다.

19C 전 기간에 걸쳐 끊임없는 농민봉기의 역사를 깔고 거기에서 다져진 자각이 갑오농민전쟁에서의 응집력으로 발휘되었고, 그 응집력에서 쟁취한 것이 집강소 활동이었다.

갑오농민전쟁은 이후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에 항거하여 줄기차게 의병활동으로 이어졌다. 한말의 의병투쟁에서도 전라도 지방이 가장 거셌다. 초기에는 산악지역인 강원도가 가장 드셌으나, 1908년 즉 말기에 들어와서는 전남지방이 전국 의병봉기의 반을 차지한다. 1909년 2월부터 9월사이의 의병봉기의 통계를 보면, 전라도 지방이 전투횟수의 47.3%, 의병수의 60.1%를 차지한다.

초기 의병을 지도했던 유생들이 들어가고 전라도 지방에서 농민 의병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부터이다.

농민 의병장들이 앞장을 선 후기 의병투쟁에서 전라도 지방이 특히 드셌던 것은 과거 갑오농민전쟁에 가담했던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나와 옛날의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기간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전남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장흥의 심남일, 보성의 안규홍, 광주의 양진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중 안규홍의 별명은 안담살이로 그 별명이 말해주듯이 그는 머슴 출신이었다.

전남지방의 의병세력이 이렇게 드세지자 일본은 전무후무한 토벌작전을 벌인다. 이것이 유명한 '남한대토벌작전'이다.

특히 15년전 전봉준이 패잔병을 모아 대접전을 벌인 장흥의 석태벌은 이 당시에도 의병장 심남일을 잡기위해 다시 일본인들의 토벌지역이 되었다. 당시의 토벌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고장 사람들은 그 10년뒤인 3·1운동때는 만세를 부르지 못할 정도였다. (전국에서 만세를 부르지 못한 곳은 8개군 이었다.)

이 '남한대토벌작전'에서 의병장 1백3명이 잡혀 죽으니, 일반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중점을 둔 것은 한국의 농촌 수탈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합방전인 1908년부터 한국 정부로 하여금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게 하여 합방 후 본격적으로 진행, 10년에 걸쳐 이사업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가장 피해를 입은 계층은 소작농 이었다. 당시 농민들 가운데 소작인은 80%(소자작 43% 포함)에 달했다.

이에 저항하는 소작쟁의도 전라도 특히 전남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다.

1922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이 소작쟁의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격렬한 사건은 모두 이 전남에서 터진다. 암태도 소작쟁의(회장·서태석), 도초 소작쟁의, 하의도 소작쟁의 등은 그 사건의 규모나 열도에 있어 다른 지방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들 이었다.

3·1운동이나 의병투쟁 그리고 광주학생 사건은 단순한 반제국주의 투쟁이었지만 이 소작쟁의는 갑오농민전쟁과 함께 반봉건적 투쟁의 성격을 띤다.

이런 조건하에서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 사건은 우리나라 학생운동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에 등장했던 구호를 살펴보면, "약소민족해방만세", "제국주의 타도만세", "피압박민족해방 만세", "무산계급혁명 만세"등으로 그동안 민족의식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부당한 관권과 불법의 수탈과 비리의 차별과 제국주의적 침략에 항거하는 것은 바로 근대화의 초석이 되는 것이요,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동력이 되는 것이었다. 즉 이들의 저항은 이에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4.현대사회에서 혁명전통의 계승

해방 직후 한국민족의 과제는 정치적으로 그동안의 식민지 지배구조를 완전히 척결하여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의 유산을 철저히 분쇄, 청산하고 민족경제를 기반으로 국민경제의 재편성, 재정립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반제, 반봉건의 과제로 요약된다.

8·15는 민족해방으로서의 가능성을 갖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실현된 것은 아니었고 외세의 개입으로 민족분단을 안겨주면서 진정한 민족해방의 가능성을 일제식민지 동조세력의 온존과 정권장악이라는 쪽으로 구체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분단국가의 형성은 미군정하에서 민중부문이 배제되고, 좌익세력의 무조건적인 배제와 함께 예속적 관료독점자본의 형성과정에서 이뤄졌다.

지난 40여년간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은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의 형성과 맞물려간 경제개발의 두 축으로 구성된 국가주도적 자본축적을 근간으로 했다. 이러한 축적체계는 농업(농촌)의 급격한 해체와 도시로의 공업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집중으로 나타났다. 타지방이 공업화와 관련된 사회적 과정이 집중되는 반면에 전라지방은 소생산양식으로서 농업의 지배구조가 온존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했다.

현대적 의미의 지역문제는 바로 이점에서 발견된다. 즉 이상과 같은 체계에서 볼 때 호남의 생산과정은 주변부의 축적과정으로 남게 된다. 여기에 문제를 더욱 심각히 만든것이 동원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호남배제감정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독점자본주의에 의해 발생된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민족주의나 반유태주의 등의 인종주의와 같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심리요소를 동원하여 기존의 지배질서를 합리화하는 경우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정권 시기를 통해 그 단계를 급격히 높여간 민족민주운동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권력내부의 암투를 야기시켜 박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군부의 집권을 통해 이뤄진 전두환정권에 의한 미증유의 탄압과 외세의 작용으로 이 민중적 역량은 또 한번 압살되었다. 이에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라는 신군부의 쿠데타 결행에 대항하여 18일 발단되어 열흘간의 투쟁을 전개한 광주민중항쟁이 발발하게 된다.

광주민중항쟁은 우리 근·현대사 위에 꾸준히 지속되어 온 민주주의 운동, 민족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으며, 그것이 비록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항쟁이었지만 결코 지역적 항쟁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느 논객의 표현처럼 지역적 투쟁이 아닌 민중적 요구의 지역적 표현이라는 것이 옳을것이다.

5.맺는말

한국사회에서 지방색으로 표현되는 대립관계는 한 사회가 갖는 계급적 모순관계의 표현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소외와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수탈의 심화 및 민중의 빈곤화는 결국 반역사적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의식을 높여왔고 그것이 폭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넘어선, 민족사 전체의 한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갔다.

필자는 수년전 정월 초하루 새벽에 무등산에서 벌어지는 장엄한 행사를 지켜보았다. 전날 밤에 산에 오른 사람들이 새해 아침 해돋이를 맞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해앓이"라 했다.

왜 이들은 희망에 찬 해맞이를 하면서 앓아야만 하는가.

시인 조태일은 '겨울소식'이라는 시에서 "찬 바람 속에서 광주는/큰 애를 뱃다더라/찬 눈에 덮어서도/무등산은/그렇게도 우람한 만삭이어라"라고 했다.

조선왕조 말기에는 반봉건, 반제국주의 전쟁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민족해방운동으로, 해방후 분단시대에는 반독재 민족통일, 민주주의 운동으로 연결되어온 전남은 또다시 때가 오면 산고 속에서 분만하게 될 큰 창조를 안고 소리없이 해앓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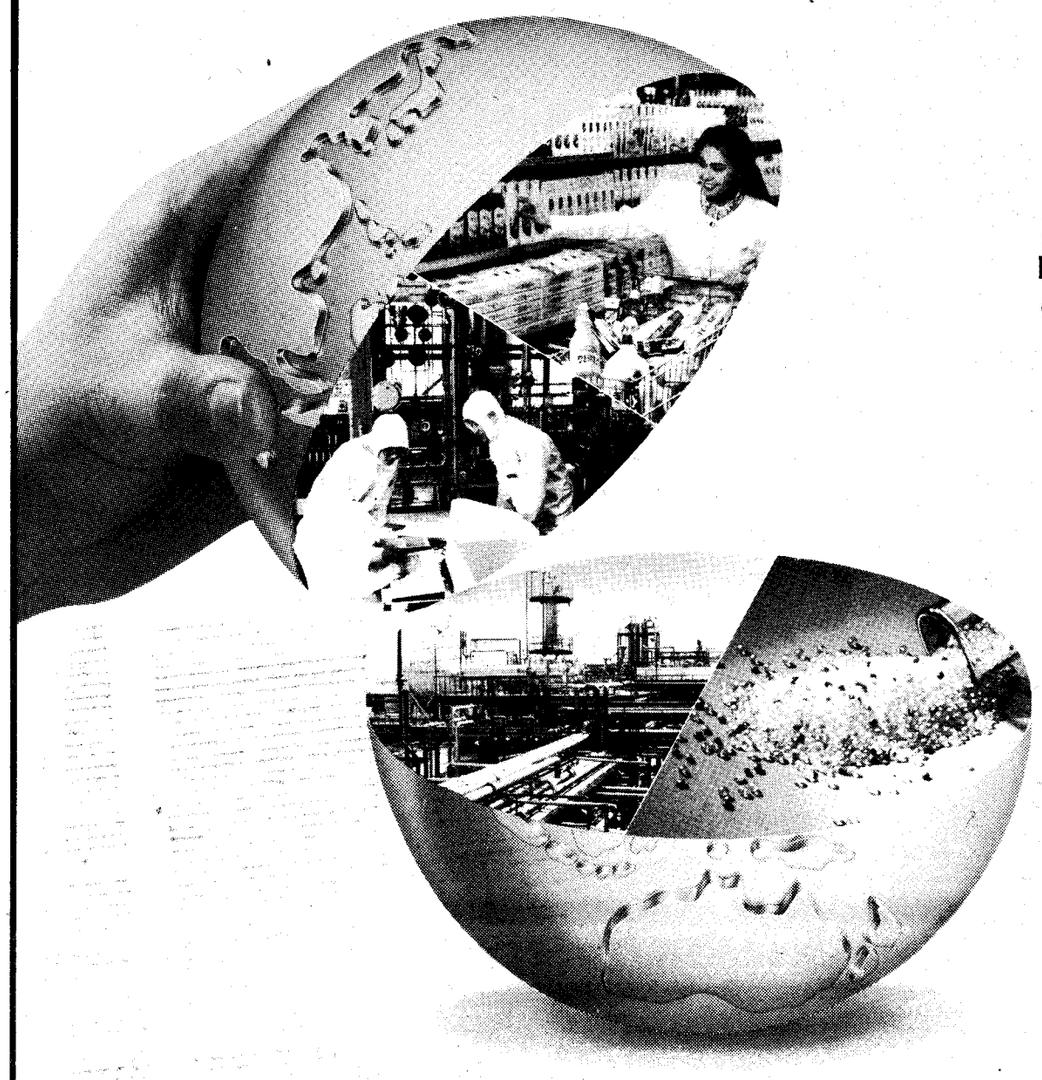
"또다시 때가오면 산고속에서 분만하게될 큰 창조를 안고 전남은 소리없이 해앓이를…"

◇ 사진은 광주항쟁시 시민들이 시민수습대책위를 구성한 모습이다.

민중의 저항, 봉건적 수탈 통한 역사적 소외에 기인

반봉건 항쟁 전통 민족·민주·통일운동으로 이어져

럭키금성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생활·산재부문

■ 프라스틱 1사업부 : 하이샤시, UBR, SMC물탱크, 온돌파이프, 자동차부품 등
■ 프라스틱 2사업부 : 모노륨, 럭스트롱, 노브롱, 카펫타일, 민속장판, 비닐벽지 등
■ 생활용품사업부 : 수퍼타이, 하모니, 페리오치약, 차밍샴푸, 알로에비누, 퐁퐁 등
■ 화장품사업부 : 아르드포, 미네르바, 에상스, 헤레나루빈스타인, 카이저 등
■ 정밀화학사업부 : 분산염료, 무공해농약원제, 계면활성제, 그라스 화이버 등
■ 의약품사업부 : 인터페론,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식품첨가제 등

화성부문

■ 화성 1사업부 : PVC스트레이트 레진·페이스트 레진, PVC 컴파운드 등
■ 화성 2사업부 : DOP, 옥탄올, 부탄올,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 화성 3사업부 : ABS레진, SAN 레진, PS레진, EPS 레진 등
■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 PMMA, PBT,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컴파운드 등
■ 폴리에틸렌사업부 :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초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국내외 합작회사

*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 Lucky Fiber Glass Corporation
* Lucky Dow Chemical Ltd. (EPOXY)
* Lucky D. C. Silicone Co., Ltd.
* Lucky Hoechst Corp. (HDPE)
*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 Henkel Rika Sdn. Bhd. (Malaysia)
* Lucky Palmco Sdn. Bhd. (Malaysia)
*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

럭키 LUCKY LTD.